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존재 이유 뭐냐”

“2공항 추진·갈등 해소 등 도정 역할·방침 부재” 맹공 도 “도정 방침은 2공항 추진...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

환경도시위원회

도내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대항 체제 상황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추진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에 이어 최근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여전히 도내 최대 현안 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든 제주도정에서 성산을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도민 갈등 해소 등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강종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질적 투명성과 지역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제2공항 건설사업 진행이 왜 더딘 것이냐. 반대와 우려곡절이 있긴 했지만 맹공이, 숨골 없는 데가 어디 있다. 다른 공항엔 없냐”며 “추진단의 활동 내역이 광범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거과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성산읍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 의원 역시 “6년 동안 성산읍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지만 공항 확충지원단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해산하라”고 쏘아붙였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따른 도정의 대책을 보니 ‘국토부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조’라고 나와 있었다”며 “결국 도지사 공백으로 제주도정의 방침이 없



강종룡 의원, 고용호 의원, 김희현 의원, 강성의 위원장.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반면 도지사 공백 이후 현 공항 확충, 제2공항 건설, 지역 갈등 해소와 관련한 도정의 방침이 전혀 없다”며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 이후 대책회의도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5년 성산읍이 제2공항 예정 부지로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만 6년 간 밟아오고 있다”며 “성산읍 주민들의 피해가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릴 만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제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제주도정의 방침”이라며 “다만 국책사업의 결정이나 추진 권한 모두 환경부와 국토부가 갖고 있다.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 안되는데 정상 추진 표기”

도지사 공약 관리 실태 질타 연료운반선 무용지물 등 쟁점

농수축경제위원회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마에 올랐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도지사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정상 추진인 것처럼 제주도가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관리카드상 공약은 전체 만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제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공약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범 의원, 고태순 의원.

이날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 연료운반선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제주도의 미흡한 대응, LPG 가격 담합 의혹 등도 거론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억원을 투입해 만든 도시지역 연료운반선의 운항 실적이 올해 단 한건도 없다”며 활용 방안을 주문했고,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할 예산 편성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또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4곳 LPG 충전사업자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자 허가 기준을 완화해 가격 담합 여지를 줄이려”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4·3 피해자 대부분 고령... 배·보상 지급 서둘러야”

“배·보상금 지급 위해 역량 집중하라” 한 목소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담당 인력 확충 등도 주문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를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4·3희생자 배·보상 현안이 쟁점으로 다루졌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4·3희생자 배·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금으로 181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8월 1인당 896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단 배·보상금을 5년에 걸

쳐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3년 이내에 지급을 마무리할 것을 유족회 측은 요구하고 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고령인 4·3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배·보상금)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같은당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은 배·보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배보상 절차를 담당할 인력 충원과 태스크포스 구성도 촉구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흥·대륜동)은 4·3 피해자의 가족 입에도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배·보상 대상에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검비해야 한다고 주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했다. 허범용 기획조정실장 등 제주도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전에 호적관리를 하던 면사무소가 불에 타 (가족관계) 기록이 사라지고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또 연차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족으로 입적한 사례도 있다”면서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의원들은 4·3 수형인 희생자 2350명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괄 재심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 배·보상금이 서둘러 지급되고, 일괄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행복도시 추구 서귀포시 정책의 양면성”

출산을 최저·자살률 최상위 건강센터 전문위탁 등 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가 서귀포시에 대한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율 전국 최하위, 자살률 전국 최상위 등 개별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과감한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은 13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가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자살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책의 양면성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2018-20년) 전국 자살률은 25.7-26.6%인 반면 제주는 30.0-31.7%에 이른다”며 “특히 서귀포는 2018년 28.0%(전국평균 26.6%), 2019년 31.1%(26.9%), 2020



이승아 의원, 김경학 의원.

년 37.1%(25.7%)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전국 대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재 보건소에서 지역중심 건강증진복지센터의 전문위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귀포시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제주시 1.02명)으로 매우 낮아 지역 내 산부인과 5곳 가운데 출산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 1곳에 불과하는 등 출산인프라(전국 단위 C등급)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남이나 경북 등 타 지역에서 운영중인 119과의 안심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임산부 전용 차량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노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금탁기자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수확의 동반자 “과일망태”
더 이상 허리속여 수확하지 마세요!

- 작물 수확하는 수확용 가방 ‘과일망태’
- 허리 피로가 크게 감소, 작업능률 대폭 상승
- 두툼한 등·어깨 패드로 오래 작업해도 편안한
- 사과, 감, 귤, 대추, 키위 등 과일 / 옥수수, 피망, 파프리카, 가지 등 갖가지 채소 수확에도 편리함

▲ 과일망태 착용 장면 ▲ 과일망태 착용 후면 ▲ 과일망태

쳐진 가지 들어 올릴때, 안파고 드는 “안파고”

안파고 드는 유인줄 “안파고”

- 사과, 복숭아, 자두 등 다양한 나무 견인 작업에 탁월한 효과
- 사다리에서도 편리하고
- 오래 작업해도 손이 아프지 않음.
- 조간편 원터치&쉬운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면에 아무런 작업.
- 안파고 110호 (원고리 × 1m)
- 안파고 115호 (원고리 × 1.5m)
- 안파고 210호 (원고리 × 1m)
- 안파고 215호 (원고리 × 1.5m)

까지·까마귀·새 쫓을 때!~ **다인덱수리엔**

4m 풀대 세트 (대형엔, 소형엔)
7m 풀대 세트 (대형엔)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스듬도 다르다!

과수 유인줄, 유인줄, 이물질 기타 영농자재
상담 및 문의 ☎

다인산업 054-652-3725
대표: 박영호 | 본점: 신안동 14-28(5층) 099
홈페이지 www.dainfine.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職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당 사용
누수탐지: 가스식, 정진기식 수도배관 녹물검출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무료 내선전기실무 및 전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대상	실업자/구직자/매출 1억5천만 미만 사업자 재직자
교육기간	11월 개강 예정 (7개월 과정)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의	064-749-3434

★ 매일 최대 30만원 훈련수당 지급 ★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 전과정 기능사 실기 합격률 95% 달성 ★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 취득 및 문서작성 실무

대상	재직자, 구직자(취업 목적), 매출 1억5천만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2021. 11. 17. ~ 2022. 10. 20
교육시간	월-금 (주 5회) 저녁 7시 ~ 10시
교육내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3가지 전부 수강)
문의	064-749-3434

★ 자부담 276,970원 있음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won.com(신제주 은남동 버스정류소 앞)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